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연등 모연문

갑진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속리산 법주사 청정도량에
자비의 등불을 밝히려고 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등불공양의 공덕으로 진리의 법광이 비추어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대웅보전** : 30만원
- **능 인 전** : 20만원
- **미 륵 전** : 10만원
- **삼 성 각** : 10만원
- **약 사 전** : 10만원
- **명 부 전** : 10만원
- **영 가 등** : 1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감로의 법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대중을 모아 놓고 법문을 설하시고 계실 때에
먼 나라에서 찾아온 머리가 하얗게 늙은 바라문婆羅門 일곱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부처님께 나아가서 사뢰옵되
"저희들은 먼 곳에 살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어 많은 중생을
교화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지장이 있어서 일찌기 찾아 뵈옵고 법을 듣지 못하여
이제 와서 뵈옵게 되오니 원하건대 감로甘露의 법을 듣고 모든 고통을
해탈하고져 하옵니다" 하고 법을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일곱 사람을 한 방에 쉬게 하고 크게 웃으시며 마음이 방탕하여
살 날이 며칠 남지 아니하니 그 기간을 헤아려 보아라 하시고
부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되 일체중생이 각기 다섯 가지 일을 빙자하니,
아직 젊다 하고, 단정하다 하고, 세력있다 하고, 재주있다 하고, 귀족貴族이라 하며
변명하니 그대들은 무엇을 믿고 이와 같이 늙었는가 하시고 즉시 한 글귀로 일러 주시되,
무엇을 기쁘다 할 것이며 무엇을 슬프다 할 것인가?
생명은 항상 불에 타는 듯하고 유명幽冥은 깊고 또 깊어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 안에서 살기를 구하는 것과 같느니라 하시니
일곱 사람은 그 뜻을 알아 부처님 앞에서 도를 얻게 되었다.

〈출요경 무상품〉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4 5 | 통권 388호



2 부처님 말씀 감로의 법
4 이달의 법문 여법 여실如法如實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6 주지스님 법문 상생하는 발전으로 정덕 스님
8 걸망메고 Vedanā(웨다나) 이해와 수행에 대하여(1) 보적 스님
11 감로의 글 바른 믿음이 가장 큰 재산이다 장산 스님
14 특집 부처님오신날 편집실
17 수행여화 어찌 오래된 술만 사람을 취하게 하랴 현진 스님
20 법주사 행사일정
21 법주사 소식
22 하안거 백일기도
23 미륵재일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24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모연문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8(단기4357)년 5월호 통권 388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보적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여법 여실如法 如實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벽암록〕 제5칙의 頌에 '꽃은 봄에 누구를 위해서 피는가?(百花春至爲誰開)'라고 묻고 있다.
누구에게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꽃은 피는가?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꽃은 피는가?
자기의 존재나 대상 경계를 의식하는 것은 중생입니다.
자연의 모든 존재는 단지 각자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 사의 생명 활동을 여법如法하고
여실如實하게 할 뿐입니다. 如法과 如實이란 진여의 지혜 작용(생명 활동)으로 중생심에서 작용하는 일체의
불안,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 공포를 소멸시킨 평안한 진여 본성의 마음입니다.
중생심에서 작용하는 의심이 소멸한 진여 본성의 무애자재하고 걸림 없는 지혜 작용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禪에서 말하는 번뇌 망념과 의심의 불안이 없는 無心의 경지라고 할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단절됨이 없이 흐르는 것이 자기 본분 사이기에 항상 청정한 생명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함과 동시에 일절 제법(만물)을 의식하지 않고 목적의식도 없이 함께
여법하고 여실하게 청정한 생명수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보살도가 자연스럽게 진여의 불이법문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자아의식(我相)도 없고, 의식의 대상 경계도 없고, 조작. 목적의식. 작위성이 없이 무심하게 자기 본분사인
생명 활동(지혜 작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계절을 철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의 시절 인연에서 나온 말입니다.
철없는 사람은 철부지라 하고, 지금 여기서 자기의 생명 활동(지혜 작용)은 잘 알고 하는 사람을
철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를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 작용(생명활동) 하는 것이 諸法如義입니다.
불교의 수행이란 말은 범어로 Bhavana(바와나)라고 하는데,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 가다.
본래의 입장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번뇌 망념의 중생심에서
진여 자성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還元性의 종교입니다.
수행 방향은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방법은 자각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여법한 진여의 지혜로운 삶은 自覺聖智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숫따니 빳따 –

●●주지스님 법문

상생하는 발전으로

정덕 스님 법주사 주지

만물의 생명이 약동하는 5월입니다.
영겁의 윤회 속에서도 여린 싹은 어김없이
언 땅을 헤집고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법주사 제34대 주지 정덕입니다.
태어난 존재는 영원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는
우주의 변할 수 없는 섭리입니다.
무상한 관계 속에서 일체 만물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합니다.
인연이라는 매듭에 얽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상의상자相依相資의
연기성緣起性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주사 주지 소임을 시작하면서
첫째로 어른 스님들을 잘 받들고 사부대중을 외호 하면서
사하촌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활성화해서
마을과 법주사의 주변 환경을 잘 정비하고
상생 발전하는 것에 깊은 마음이 간절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보은군과 충북이 법주사와
상생 발전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표어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은
닫힌 마음으로 편견과 다툼, 미움, 반목과 질시,
'나'만의 이윤을 탐하고 '나'만의 안일을
추구해서는 얻어질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배려, 협력 속에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의 희망을 기원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광명을 밝혀나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Nikāya를 중심으로

Vedanā(웨다나) 이해와 수행에 대하여 (I)

보적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I. 들어가는 말

Vedanā는 〔√vid(알다, 느끼다)의 caus or pass + ana(명사형 어미)〕로서 느낌, 감각, 수(受)라고 역주되고 있다. 여기서 나의 주목을 끈 것은 어근 √vid(알다, 느끼다)의 쓰임이었다, 보통 지혜와 앎과 관련된 단어가 √vid는 vedanā와 vijjā(√vid-ya)에서나 쓰이고 어근 √jñā(알다, 추측하다)의 쓰임이 대부분이란 것이다, 예를 들면 saññā (saṃ-√jñā), paññā(pa-√jñā), abhiññā(abhi-√jñā), pariññā (pari-√jñā),sampajaññā(saṃ-pa-√jñā), viññāṇa(vi-√jñā-ana) 등에서와 같이 어근 √jñā는 전치사나 접두어를 부가하여 그 뜻을 구분하거나 명확히 하는 것과 달리 어근 √vid는 사역형이나 수동의 어미를 붙이는 것 말고는 그대로 명사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vijjā는 명지, 밝은 지혜 등으로 번역되는데 바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고정된 실체가 아닌, 그냥 앎과 지혜가 즉각적, 바로, 즉시, 있는 그대로, 즉시에 알고 느끼고 보는 작용이 아닌가 하고 사유하게 되었다. Vedanā 또한 바로 느낌이 느끼는 작용일 뿐이라는 사유를 하게 되었다. 이차적으로 갈애와 취착의 조건으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Phassa를 조건으로 vedanā가 생기는데 phassa를 감각접촉, 접촉, 충격, 자극, 상황이라고 이해할 때에 수행을 실천하는 데 있어 외딴 처소에서 수행하는 것등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또는 대중 속에서 phassa의 조건에 따른 vedanā의 일어남과 사라짐은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특히 vedanā는 오취온의 요소이면서 12연기의 한 구성요소이고 실천수행에 있어 mahāsatipaṭṭhāna sutta 신.수.심.법 수행의 중요한 하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vedanā와 관련된 mahā nidāna sutta〔D15〕와 mahā-taṇhāsaṅkhaya sutta〔M38〕, mah¯a-vedalla sutta〔M43〕, 그리고 nidāna-saṃyutta〔S12〕 dhātu-saṃyutta〔S14〕, khandha-saṃyutta〔S22〕, vedanā-saṃyutta〔S36〕 등을 통해서 vedanā를 이해하고 또한 vedanā를 통한 수행의 길을 정립하는데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II. Vedanā의 이해

(1) 오온 (五蘊, pañca-kkhandha)에서의 vedanā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느낌이라 부르는가?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느끼는가? 즐거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삼켜버림 경(Khajjanīya-sutta), S22:79〕

위와 같이 경들에 의하면 느낌에는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세 가지가 있다. 특히 '느낀다(vediyanti=vedeti)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는 것은 오온의 문맥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vediyanti=vedeti)라고 어근 √vid의 수동형 내지 사역형을 취하고 있는 부분은 느껴진다 또는 느끼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지어진 오직 느낌이 느끼는 것이지 다른 개아나 중생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온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잘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오온의 문맥에서는 느낌이 물질, 인식, 상카라, 의식과 함께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형성〔有爲〕된 것이고 소멸할 것이며 없어질 것이라고 꿰뚫어 알아야 한다고 간절하게 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느낌인가?

비구들이여, 여섯 가지 느낌의 무리가 있나니 눈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 귀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 코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 혀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 몸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 마노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에서 생긴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느낌이라 한다.

감각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느낌이 일어나고 감

각접촉에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한다.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八支聖道=팔정도〕가 느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니 그것은 바른 견해 … 바른 삼매이다."〔취착의 양상 경(Upādānaparipavatta-sutta), S22:56〕〔일곱 가지 경우 경 (Sattaṭṭhāna-sutta), S22:57〕

위와 같은 몇몇 오취온과 관련된 경들에서 설명되어 지고 있는 느낌에 관한 정형구이다. 다음 단락에서 다루어지는 연기의 문맥에서 나오는 느낌에 관한 부분으로써 이차적인 조건의 느낌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다섯 가지 느낌인가?

육체적인 즐거움의 기능〔樂根〕, 육체적 괴로움의 기능〔苦根〕, 정신적 즐거움의 기능〔喜根〕, 정신적 괴로움의 기능〔憂根〕, 평온〔upekkhā〕의 기능〔捨根〕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다섯 가지 느낌이라 한다."〔백팔 방편 경 (Aṭṭhasatapariyāya-sutta), S36:22〕

위와 같은 경은 Vedanā-saṃyutta의 경들 가운데 나오는 느낌에 관한 설명이다.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Indriya-saṃyutta의 분석 경〔Vibhaṅga-sutta, S48:36,37,38〕 I.II.III을 살펴보면 ①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으로 편안함, 몸에 닿아서 생긴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육체적즐거움의 기능이라 한다.

② 육체적인 괴로움, 육체적으로 편안하지 않음, 몸에 닿아서 생긴 괴롭고 편안하지 않은 느낌을 육체적 괴로움의 기능이라 한다.

③ 정신적인 즐거움, 정신적으로 편안함, 마노〔意〕에 닿아서 생긴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정신적 즐거움의 기능이라 한다.

④ 정신적인 괴로움,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음, 마노에 닿아서 생긴 괴롭고 편안하지 않은 느낌을 정신적 괴로움의 기능이라 한다.

⑤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편안하지도 않고 편안하지 않은 것도 아닌 느낌을 평온의 기능이라 한다.

그러면서 다시 구분하기를 육체적 즐거움의 기능과 정신적 즐거움의 기능은 즐거운 느낌이라

고 보아야 하며 육체적 괴로움의 기능과 정신적 괴로움의 기능은 괴로운 느낌이라고 보아야 하고 평온의 기능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으로 세 가지 느낌의 정형구로 이해되지만 〔백팔 방편 경, S36:22〕에서 두 가지 느낌, 세 가지 느낌, 다섯 가지 느낌, 여섯 가지 느낌, 열여덟 가지 느낌, 서른여섯 가지 느낌, 백여덟 가지 느낌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윳따 니까야의 Vedanā-saṃyutta의 몇몇 경들〔빤짜깡가 경(Pañcakaṅga-sutta, S36:19), 출세간 경(Nirāmisa-sutta, S36:31)〕에 의하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不苦不樂受〕은 수승한 느낌이다.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제4선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자면 삼매 체험이 없는 일반사람들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바른 믿음이 가장 큰 재산이다

장산 스님 법주사 사리각

믿음이 가장 큰 재산이요
베푸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
맛 중에는 진실한 맛이 으뜸이요
지혜로운 삶이 가장 훌륭한 삶이니라.
– 숫타니파아타 –

신위도원공덕모 信爲道元功德母
장양일체제선근 長養一切諸善根
단제의망출애류 斷除疑網出愛流
개시열반무상도開示涅槃無上道
–華嚴經 賢首品–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모든 일체의 선한 공덕을 길러내고
의혹의 그물을 끊고 애착의 무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바로 열반의 무상도(대도)를 열어 볼 수 있게 한다.
– 화엄경 현수품 –

믿는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가,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무것이나 믿고 의지했단 큰 탈이 날 수가 있을 것이다.

암탉을 믿으면 계란이 나오는가! 어린 암 병아리나 늙은 암탉한테서는 아무리 잘 먹여도 계란을 얻을 수가 없다. 성장한 암탉이라 해도 영양가 있는 모이를 주고 환경을 평화롭게하여야 비로소 계란을 얻을 수가 있다. 작은 믿음도 이러할진데,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데, 큰 믿음은 크게 정성을 드려야 함은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큰 믿음에는 첫째, 일체중생을 사랑과 지혜로 보살피시는 부처님을 믿음이요. 둘째,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다르마, 경전)를 믿음이요. 셋째, 진리에 의해 여법하게 수행하는 스님을 믿음이요.(승가) 넷째, 자기자신을 확고히 믿는 것이다.(心眞如) 이 네 가지를 사신(四信)이라 한다. 사신이 확립되어야 크고 아름다운 훌륭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럼, 가장 크고 멋진 재산이란 무얼 말하는 것인가?

'가장 큰 재산'이란 동산動産,부동산不動産과 돈,권력, 명예 등등 이런 것이라고요.한 마디로 말하자면, '구김살없는 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먼저 주어보아라 돌아오는게 없어도, 내 마음에 흡족하면 기다리지 않아도 돌아오는 게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상 없이(無相)'행하라 한다. 그 사람에게서 사랑받지 못해도 우주에서, 자연에서 돌아오는 것이 마치 소리에 응하는 메아리와 같다하였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 불화하고, 자식이 부모

를 홀대하면서 늙은 부모는 빨리 죽어야 한다는 무리가 있다하니,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은가 보다. 권력이 많아도 역시 구설수가 많으니, 권력도 행복의 척도는 아닌가 보다. 명예 역시 추구하여 얻으니 지키기 어렵고 힘들 때가 많으니 행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산을 물질로만 보지 말고 정성과 사랑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장 큰 재산은 그렇다.

불교에서는 베푸는 것을 '보시報施'라 한다. 베풀기 때문에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고, 베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 (孔子曰 德不孤 必有隣 :공자가 말씀하시되, 덕 베푸는 것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날 좋아 하는] 이웃이 있다.)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관점에서 보자면 남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옹졸하고 못난이가 된다고 본다. 큰 틀에서 생각하면 이웃뿐만 아니라 우주법계에 남이 없다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사랑에서 배제될 사람은 없는데, 우리 중생들은 스스로 좋고 싫은 사람을 업습으로 분별하는 습관이 베여있다. 스님도 마찬가지나 표현이나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려 애쓴다. 그것이 바로 업을 소멸할려는 노력이며 방법이다.

유가儒家에서도 '무욕無慾이 대욕大慾'이라 하였다. 잔잔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그럼, 보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수행에 의한 진리적 베품(法施), 물질적 베품(財施), 정신적 베품(無畏施) 등이 있다. 먼저 법시法施란,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수행과 더불어 말씀으로 전파하여 알려줌이요. 재시財施란 내가 가진 약간의 재물이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 위로함이요. 무외시無畏施란 법문은 아니지만, 정확한 정보나 어려움을 달랠 수 있는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로 상대를 의기소침(意氣銷沈)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와 말들이다. 즉, 이웃에게 진리의 부처님 말씀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약간의 재물로 위로하는 행위나 위로의 말로도 남을 돕고 지내는 삶은 자타가 함께 행복을 공유하는 삶이 아닐 수 없다.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좋은 친구를 사귀는데, 3가지 조건을 말하였다. 첫째는 서로 화합하고 소통(상호 좋아함)을, 둘째는 선의善意의 의지意志를 가진 자를, 셋째는 언행言行에 진실이 깃든자를 사귀라 하였다. 언행이 진실하지 못하고 악의惡意를 품은 자를 벗하면 서로 공모하여 범죄조직을 만들 수도 있으니, 나도 불행하고 이웃과 온 사회가 다 불행의 도탄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기경전인 '숫타니파아타'에 모든 맛 중에는 진실맛이 으뜸이라 하였다. 농담도 가끔은 분위기를 띄우는데 기여하지만 자주하면 불신의 싹을 틔울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신용없는 자가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리석다. 그 욕심 때문이겠지만, 욕심이 없는자도 어리석다. 의욕이 없기 때문이다. 의욕이 왕성하면 욕심도 왕성하게 따라 다닌다. 욕심이 없는 이는 매사 흐리멍텅하여 의욕이 없다. 그냥 되는데로 물결치는데로 산다는 건 바른 삶이 아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삶'이란 열정과 의욕도 왕성하지만 사사로운 욕심이 적은 사람이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도,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도, 나와 친분과 친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아닌, 대중적이고 전체적인 배려와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며 불교에서는 보살의 삶이며 보살의 원願과 행行을



발원發願하는 사람이다.

무량한 과거세에 모든 부처님이 보살인행시菩薩忍行時(부처를 이루기 전에 행원을 발하고 오랜 기간 동안 목숨을 바치는 수행도 마다하지않고, 일체중생을 구호할려는 의지로 초지일관 인욕행을 닦아 온 아득한 세월)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500대원을, 아미타불은 48대원을, 약사여래불은 12상원을 발원하시고 수행정진 하셨던 것이다. 참다운 지혜는 첫째, 정의롭고, 청정하며,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열정이 있는 삶이며 전체 대중을 위한 삶이다. 서원誓願을 먼저 세우라 함은 자기와의 철저한 약속이다.

지혜로운 삶이란, 현실적으로 불자라면, 자주 사찰에 와서 참배하고 세속적인 일들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근심걱정을 털어버리고, 기도하고 참선하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예참하는 일이다. 이런 사람이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부처님의 명훈가피력冥熏加被力(부처님이 항상 은근하게 보살피신다)도 항상하니, 큰 위험에서 벗어날 것은 자명自明한 일이다. 토마스 에디슨은 1093가지의 발명특허를 냈다한다.

이 발명품들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에 의해 창출되었다. 하지만, 노력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1%의 영감에 더 무게를 실었다. 1%의 영감을 얻을 만한 장소로 사찰처럼 세속적 번뇌가 적고, 청결하며 단아한 장소는 없다. 깊은 명상적 수련과 인생과 우주의 무한함을 떠올리며 창의적이고 돌출한 영감은 참선수련에서 힌트를 얻어 가시길 고대해 본다. 그대의 선택은 자유다. 그대의 열린 안목이 인생을 좌우한다. 바로 **'지혜로운 이의 안목이 가장 훌륭한 삶이다.'**

부처님오신날

편집실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동산

기원전 563년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마야부인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출산을 하기 위해 친정으로 가던 중 룸비니동산에 있는 무우수無憂樹(sal tree) 나무 아래에서 잠시 휴식하시면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다. 마야부인이 무우수 나무 가지를 잡는 순간 아기는 마야부인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하였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고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외친 탄생게가 그 유명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이다. (하늘 위아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나니 온갖 괴로움으로 덮인 세상 내 마땅히 평안케 하리라)이다.

석가는 샤키아(Sakya)라는 민족의 명칭을 한자로 발음한 것이고 모니(muni)는 '성인'聖人이라는 의미이다. 석가모니는 '샤키아 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이다.

그분의 성은 고타마(Gautama)이고 이름은 싯다르타(Siddhartha)이다.

29세 출가하여 35세 깨달음을 얻어 붓다(Buddha, 佛陀)라 불리게 되었다.

"천상천하에 현재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라는 이유를 일러주신 부처님의 말씀은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를 본래 자신이 지니고 있었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살아왔다.

사람이 하늘이고 부처이다. 부처님은 자유와 평등의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깨우쳐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셨다. 공정과 정의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라 하신다.

관불의식

관불의식灌佛儀式은 아기부처인 탄생불誕生佛의 머리에 깨끗한 물을 부어 목욕시켜 드리는 의식입니다.

싯다르타 태자의 탄생설화는 부처님이 태어나시자 9룡이 목욕시켜 드렸다는 데에서 유래합니다.

관불의식을 행하는 뜻은 자신에게 본래 존재하는 불성佛性을 깨닫고 자기부처를 목욕시키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에겐 본래 부처성품이 있으나 온갖 집착과 번뇌가 본래의 부처 성품을 가리고 있어서 중생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생은 장차 수행하여 깨달을 미래불입니다. 그 미래불을 깨어나게 하려는 의식이 관불입니다. 즉 자신의 번뇌를 씻어내고 본래의 부처성품으로 돌아가 스스로 성불하여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목욕진언沐浴眞言

거룩하온 금색신을 관불하오니 바른 지혜 공덕장엄 모두 이루어 모든 중생 모든 허공 맑아지옵고 위없는 정법신을 이뤄지이다.

시수진언施水眞言

제가 이제 길상수로 삼업 기울여 빛나옵신 여래정에 부우옵니다.

바라노니 모든 중생 번뇌 다하여 모두 함께 법왕위를 이어지이다.

육법공양 게송

향을 올립니다.

해탈의 향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계향, 정향, 참다운 향기, 하늘까지 피어올라 삼천대천 세계까지 맑게 퍼져 가옵소서.

성스러운 이 향기가 세상을 맑히옵고 중생들의 악업이 소멸되어 해탈 선정에 어서 올라지이다.

등을 올립니다.

반야의 등불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등이 되어, 온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고자 하오니 오늘 저희들이 올리는 이 등불이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어, 반야의 대지혜에 어서 올라지이다.



차를 올립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감로차를 올립니다.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청정한 진리를 펴내시는 승가에 감로의 청정한 차를 공양하오니, 이 공덕 무량하여 선정의 맑은 차에 지혜 광명드리우사 일체 중생 성불하여지이다.

꽃을 올립니다.

만행의 지극한 정성으로 이 꽃을 예경하여 올립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처럼 우리는 각각 다른 성품과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거룩하신 부처님의 일불 제자로서 만행의 꽃을 피워서 장엄하게 하여지이다.

과일을 올립니다.

과일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은 뒤 앙상한 가지만 간직하는 한 그루의 과일 나무처럼, 위없는 존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지은 공덕 바라는 마음없이 모든 이웃에게 회향하나이다.

쌀을 올립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선열의 미를 예경하여 올립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일체 중생의 무한한 공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전에 백미로서 공양 올리오니, 이 공덕 시방세계 회향되어 선열의 큰 바다 이루어지이다.

●●수행여화

어찌 오래된 술만 사람을 취하게 하랴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어느 산골 스님이 그랬다. 향기에도 무게가 있다고.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향기가 있는가 하면 가슴까지 스며들어 오래 남는 향기도 있단다.
물이 주머니를 채우듯 가슴까지 차오르는 향기가 위에서 말하는 '마음에 스며든다'는 뜻일 것이다.

근래엔 아침마다 향을 피우고 밀초에 불을 켜면 그윽한 분위기가 감돈다.
여기에 음악을 흐르게 하고 차를 마시는 것이 아침을 맞이하는 나의 일상이다.
가끔 봄꽃 한 가지를 잘라 다실을 장식하기도 한다.
〈베갯머리 서책〉의 저자 세이쇼나곤은 '숲은 통틀 무렵이, 여름은 밤이,
가을은 해 질 무렵의 정취가, 겨울은 새벽녘이 가장 좋다'고 했다.'
나의 숲도 아침 무렵이 더 좋다.
이런 시간은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고 싶지 않으며,
오롯이 나를 위한 공간으로 삼고 싶다. 홀로 있음을 당당하게 자각하며
주어진 하루를 맞이한다. 이런 시간마저 없었다면 시끄러운 세상으로
이미 하산했을 것이다. 이러한 조촐한 시간이 만약 주어지지 않았다면
출가의 삶을 진즉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홀로 있으면서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범속한 일상에 매몰되지 않는 법.
송나라 상류층에서는 '사반한사四班閑事'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
네 가지를 벗 삼아 여유를 즐기는 일인데 이른바 차, 향, 꽃, 그림을 가까이 두는 것이다.
차 마시고, 향 사르고, 꽃을 꽂고 그림을 감상하는 풍류 가득한 삶을 이르는 말이다.
이러므로 다실에는 이런 친구들이 준비되었을 때 형식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실에 향 연기 감돌고 꽃이 놓여 있으면 아치가 한결 맑을 것이나,
그곳에 그림 하나 장식하고 있으면 그 공간은 더욱 격조 있을 것이다.

그림을 주제 삼아 시詩,서書,화畵를 논하면
그 어떤 자리보다 고결할 것이다.
물론 저급한 정치 이야기나 세간에 떠도는
남녀상열지사는 사절이다.
오늘 다실의 그림을 바꾸어 걸었다.
명나라 시대의 문사 문징명의 품다도品茶圖를
담은 영인본 족자이다.
진품은 대만 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그곳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구입한 것이다.
문징명은 뛰어난 문장가이기도 했지만
탁월한 다인茶人이기도 했기에
햇차가 유통되는 계절에는 그의 거처에
손님들이 왕래했다 한다.
이 품다도는 유행이 되어 묘사와 위작이 무척
많았다니까 그의 명성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그림의 화제畫題는 꽤 유명하다.

푸른 산 깊은 곳 먼지 하나 없는 곳
계곡 옆 창문을 모두 열어 놓고
곡우 금방 지났기에 차 마시기 좋은 때라
솥의 물 막 끓어오르는데 때마침 반가운 벗이 왔네

곡우가 지나면 햇차가 생산되니까
그 무렵 산방에 모여 차를 맛보며 품질을
평가하는 자리인 것이다.
그 풍경을 잘 묘사했다.
이런 품다회 자리가 널리 전승되지 못하고
점점 소멸되는 게 아쉽다.
나의 다실에는 또 한 점의 다게茶偈가 있다.

막도취인유미주 莫道醉人唯美酒
다향입심역취인 茶香入心亦醉人

이름난 술만이 사람을 취하게 한다 말하지 마오.
맑은 차 또한 마음에 스며들면 그 향기에 오래 취한다오.

출처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차의 정신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한결 선생의 서체로 옮겨 적은 것이다.
어느 산골 스님이 그랬다.
향기에도 무게가 있다고.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향기가 있는가 하면
가슴까지 스며들어 오래 남는 향기도 있단다.
물이 주머니를 채우듯 가슴까지 차오르는 향기가
위에서 말하는 '마음에 스며든다'는 뜻일 것이다.
다실은 간결하고 정돈된 것이 좋다.
꼭 필요한 도구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저것 모아 놓으면 너절할 뿐 집중되지 않는다.
선실과 다실은 비워두어야 명작이다.
여백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흔히 정원의 미학을 말할 때 자연미와
인공미 비율을 7:3으로 분할한다.
이것이 황금비율이듯 다실 공간도 그래야 한다.
'사반한사' 외의 것들은 모두 거추장스러운
물건일 뿐이다.
젊을 때는 물건으로 가득 찬 공간을 부러워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다. 그런 공간은 답답하고
복잡하다. 내가 물건에 예속된 기분이 들기에
싫어졌다. 나는 텅 빈 선실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다.



내가 그 공간의 주인이 잠시 되었다가 다시 돌려주는
기분. 그 어떤 물건이든 영원히 지닐 수 없으므로
간소하게, 또 간소하게 지닐 것이다.
나도 이제 하나씩 내던질 것이다.
여백 증후군이란 병이 있단다.
일정이든, 공간이든 비어 있으면
불안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수첩에 약속이 가득해야 안심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것도 환자라는 기준이 놀랍다.
너나 할 것 없이 비우는 생활보다 채우는 일이
습관이 되었다. 이러하기에 채워서 행복하기보다는,
비워서 홀가분한 삶을 선택할 것이다.
삶의 기술은 공간을 비우는 일이다.
그것이 물건이든, 명예든. 과감히 비웠을 때
걸림 없고 가벼워지는 인생사.
그 이치를 이순耳順 즈음에야 알아가고 있다.



포근하고 따듯한 법주사의 봄

봄의 향기를 머금은 법주사

법주사의 따듯한 봄은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와 많이 닮았습니다.
따스한 햇볕과 법주사의 아름다운 전경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 만족은 최상의 재산,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법구경

2024. 5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3.23 근로자의날	2 24 관음재일	3 25	4 26
5 27 어린이날 입하	6 28 대체공휴일	7 29 합창단법회	8 어버이날 4.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9 2	10 3 신중기도회향	11 4
12 5	13 6 다도반법회	14 7	15 스승의날 8 부처님오신날 약사재일	16 9	17 10	18 11 법주회 법회
19 12	20 13 소만	21 14	22 15 보름 하안거결제	23 16 미륵재일	24 17	25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26 19	27 20 다도반법회	28 21	29 22	30 23	31 24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3월 27일 방생순례



4월 9일 초하루법회



4월 23일 도불기원법회



4월 24일 미륵대불회향34주기

하안거 백일기도

하안거 백일기도는 100일 동안 외부와 단절하고 오직 깨달음을 위해
수행 정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오직 수행과 기도로서
원력을 삼으시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서원을 이루고자 정진하는 기간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세속의 번잡함을 여의고
덕 높은 스님들의 수행과 기도의 원력을 받아서 소원성취 이루시길 발원 드립니다.

- **입　　재** : 불기 2568년 **5**월 **22**일(음 4월 15일) 수요일
- **회　　향** : 불기 2568년 **8**월 **18**일(음 7월 15일) 일요일
- **동 참 금** : **2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미륵재일 기도

다가올 미래에 공덕과 불법을 펼쳐 중생들을 교화해 주시는
미륵부처님께 매달 미륵재일마다 모든 중생들의 업장을 참회하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발원합니다

- **일　시** 매월(음) **16~18**일
- **동참금** 가족당 **2**만원 (농협 403020 - 51-010482)
- **문　의** 원주실 (043) 543-4755

초하루 신중기도

매달 초삼일 동안 불보살님과 불법을 옹호하고 중생을 보호해 주시는
104위 신중님께 신중기도를 드리면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가정이 화목해지며
사업이 번창한다고 합니다



- **일　시** 매월(음) **초하루 ~ 초삼일**
- **동참금** 가족당 **2**만원 (농협 403020 - 51-010482)
- **문　의** 원주실 (043) 543-4755